

건강 칼럼

여름철 급증하는 여성 방광염... 원인 및 처방은?

무더운 여름에는 땀 분비량 변화와 음료 섭취 증가 등으로 인해 소변 배출에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특히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세균 번식이 왕성해지면서 방광염 환자가 증가한다.

방광염은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속이 빈 주머니 같은 근육기관이다. 이러한 방광 접막이나 접막 아래 조직이 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방광염이라고 한다. 방광염은 일반적으로 대장균에 의해 발병하며 포도상구균·간균·장구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방광염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방광염 환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요도가 짧아 장내 세균이 침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의 50% 정도는 평생 한 번 이상 방광염을 겪기도 한다.

방광염에 걸리면 소변이 짝거나 소변을 볼 때 가렵고 아프다. 방광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을 덜 본 듯한 잔뇨감,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절박뇨, 혈뇨 등이 있다. 단순 방광염의 50% 정도는 자연적으로 호전된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상부 요로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방광염을 방지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만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연 3회 이상 방광염이 재발되면 만성 방광염으로 볼 수 있는데, 세균이 남아있다가 장기간 방광염을 유발하거나 다시 재감염 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세균 감염 없이 소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방광염은 만성화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할 수 있다. 실제 방광염은 4명 중 1명 꼴로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적기에 제대로 된 처방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방에서는 방광염의 증상, 연령, 체질 등을 고려해 열증 치료를 진행한다. 여기에 방광염 예방을 위해 비뇨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처방을 시행하며, 만성 방광염의 경우는 면역력 개선을 위한 처방도 병행한다. 처방은 방광 염증을 해결하고



김경숙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

사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알고리즘(algorithm)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한다. 아담 수화자 알파레즈미(780~850)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중세 유럽인들은 그의 책을 교과서로 삼아 실용 수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을 따 알고리즘이라고 불렀다.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연관 검색어 기능'은 확률이 높은 다른 검색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서비스의 하나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교한 알고리즘들의 집합이다. 알고리즘은 반복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작은 프로시저(진행 절차)를 의미한다.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알고리즘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최근 여왕 의원들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 인기도 순위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뉴스 인공지능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개편했다. 뉴스 페이지 우측 상단에 '알고리즘 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 네이버는 사이트 내 설명 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관련 설명을 했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매일 수만 건의 기사 가운데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해야 한다. 자동화된 방식으로 뉴스 품질을 측정해 품질 높은 기사를 배열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다수 이용자에게 추천 가능한 주요 이슈도 감지해야 한다. 매일 생산되는 수많은 기사 중에는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의 기사가 있다. 이런 기사는 사용자의 평소 선호와 무관하게,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요 이슈'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특성은 주요 현안에 관한 최신 기사들을 노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질의 심층 기사를 추천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전주 기령당 창립기념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당장 이상철)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13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제426회 전주 기령당 창립기념일' 행사를 열었다. 기령당은 과거 전라감영에서 업무를 보던 관리들이 퇴임 후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풍류를 즐기며 쉬던 곳이다. 용머리 고개 동쪽에 활을 쏘던 활터인 군자정을 만든 것이 시작으로 420년이 넘는다. 기령당은 한옥의 변화 과정과 건축 기법을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가 크다.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서 비롯된 기묘한 행사를 이어오는 등 충분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103세 생일을 맞은 구복순 어르신에게 장수상이 수여됐다. 효자상(임은애씨)과 효부상(전영자씨)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기령당 고문서 번역 발간을 위해 힘쓴 정양복 이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되기도 했다. 이상철 당장은 "기령당이 지금처럼 전주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이어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령당을 통해 오랜 세월 축적해온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기령당은 경로문화의 보고이며 충, 효, 예와 선비정신 역사의 산실이다. 오늘날 전주 기령당의 선비정신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임진왜란 때 이치와 곱치전투에서 호남 의병이 왜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기령당의 선비정신 덕이다. 정유재란 때에는 기령당도 불타 없어졌지만 곧바로 기능을 회복했다. 기령당 창립 426주년이라고 하지만 실제 창립은 600여 년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령당은 선비정신의 모태가 되는 곳이다. 선비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정신을 근본으로 한다. 선비와 선비정신을 현대에 다시 불러내어 오늘날의 새로운 가치관과 자신의 생활지침으로 삼는다면 풍요로운 정신문화를 이룩하는 데 해법이 될 것이다. 기령당 창립 426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령당의 선비정신을 새롭게 세기기를 바란다. 기령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으로 전주 완산동 군자정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전라관찰사나 전주부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다. 이곳에는 전라도 선생안과 전주부선생안을 수호신 격으로 간직하고 있다. 선생안(先生案)은 조선시대 각 기관에서 집임 관원의 성명 관직 생년 등을 적어 놓은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로마 41도, 수도에 모인 사람들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폰테온 신전 부근 수도에서 사람들이 물을 받고 있다. 이날 로마의 최고 기온은 41도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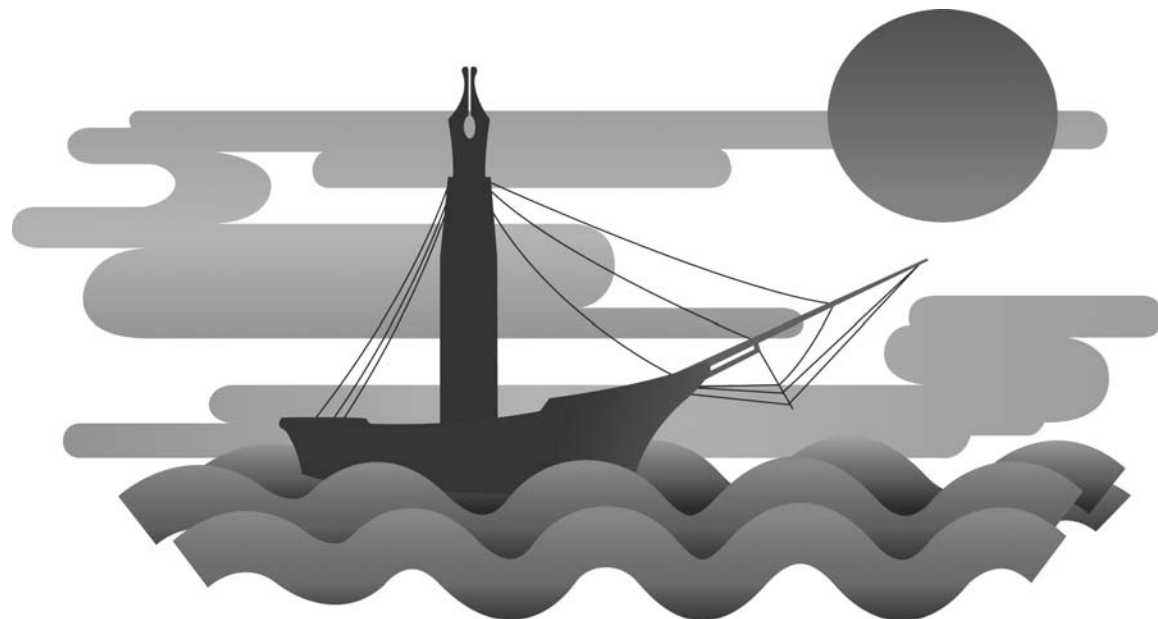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연막 피우는 이스라엘 사법 개편 반대 시위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연막을 피우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가 재개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주요 도로 곳곳을 점거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사법 개편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부 공군 예비역들은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